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7-07호 2007년 7월 15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1구역 둘째 일; 2구역 첫째 일 웹사이트: [kr.blog.yahoo.com/bonasfo](http://kr.blog.yahoo.com/bonasfo)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 지식에 선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2고린 3,6)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한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줄 많은 재물을 획득하려고 다만 말마디만을 배우기를 열망하는 이들은 문자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문자(성서)의 정신을 따르기 원치 않고 말마디만을 배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열망하는 수도자들은 문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문자나 알고 싶어하는 문자를 모두 육신의 것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선을 소유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주 하느님께 돌려드리시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문자의 정신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 영적 권고 7

성서의 정신을 지니고 실천할 것을 말씀하시는 7권고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점을 배울 수 있다.

1. 영신 생활에 있어서 갖고 있는 지식으로 만족하지 말고, 항상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자세를 통해 내적으로 풍부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나이 든 수도자 중에 영적독서등 영신생활의 성장을 위해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명이신 주님 말씀을 되풀이해 듣고 자주 그 말씀에 대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을 완전히 알고자 노력할 것이며,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이었던 성보나벤투라는 이 공부의 목적을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자신의 지식, 수준이 다른 이들보다 높다고 하여 우월감을 갖거나 자랑, 교만에 빠진다면 그 지식을 자기 육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되고 맙니다.
3.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 역시 하느님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 우리 삶의 터전인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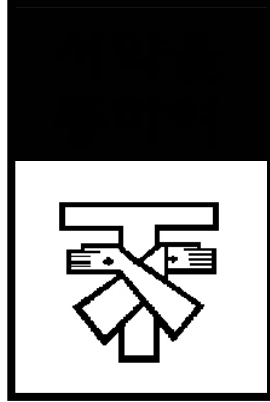
우리가 재속 프란치스코인이 되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세상을 떠나는 것과 같다. 재속 프란치스코인에게 세속은 더 이상 더럽고 경멸하거나 도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고 성화시켜야 할 삶의 자리”이다. 재속 프란치스코인으로서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바로 복음이요 십자가요 프란치스코의 모범이다.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낮아지고 작아지고 내려갈 수 있는 삶의 터전에 살고 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복음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세상 가까이 있다. 우리 삶의 터전이 조금씩 복음화 되면 그만큼 세상을 통해 프란치스코가 노래했던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생활하고, 삶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사랑과 평화와 행복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재속 프란치스코인은 복음의 재속성을 널리 알리는 당사자들이며 표지이다.

- ‘라 베르나’에서



오 주님, 우리 하느님, 저희는 갖가지 모습으로 온갖 일을 하면서 살지만 서로에게 서로를 내놓아 하나를 이루는 가운데서 교회의 부르심과 생활 안에서 세라핌적 사부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청하오니 저희가 매일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면서 복음에서 생활로 생활에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서**약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서약은 세례로 발생하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의 공통의 의무를 말한다. 한편 엄격한 의미에서 서약은 한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로서, 서약을 받아들일 장상의 권위 아래 교회가 인준한 회의 회칙과 회헌에 따라 복음적 생활을 서원함으로써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다. 회원은 서약을 통하여 교회와 더욱 친밀하게 결합된다(회칙6).



주시고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초대해 주시는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굳게 믿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약한 바를 항구한 열정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을 서약하는 사람은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에 따라, 각자의 고유한 처지에서 가능한 한 복음적 생활을 실천하는데 전 생애를 봉헌하여야 한다. 이 서약은 성세 서약의 특별한 쇄신이며 세속 가운데 사는 회원이 회칙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르고, 성 프란치스코의 방법대로 복음적 생활을 약속한 하느님께 대한 자기 봉헌 이외 다른 것이 아니다. “서약의 힘으로, 회칙과 회헌을 통한 그 적용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 특별한 성소와 정확한 정체성은 물론, 일상 체험의 출발점을 대변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회헌의 공포, 2000년 개정 회헌 공포 회람)

+++

여기서 보듯이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의 신원은 그 무엇보다도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복음적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 예절서는 서약의 근본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기혼자와 독신 남녀들 그리고 재속 사제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적 완덕 생활의 길을 추구함에 있어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충실히 따르기 위해 형제회 안에서 복음을 살기로 약속하여 성세의 고귀한 선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더욱 충만하고 풍요롭게 완성한다.”(1항)

서약은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맹세일 뿐 아니라, 또한 서약자에 대한 하느님 편에서의 약속이기도 하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므로 서약한 사람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신 약속은 그러한 약속이다. 따라서 회원은 서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



### + 축하합니다 +

#### 종신서약:

김영자 켄마, 강수연 마리아  
박용순 세실리아, 남효선 엘리사벳

#### 입회:

최메어리 마리아, 박상태 요한  
박세중 루시아

하늘과 땅아, 주님을 찬송하라.  
모든 강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이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이스라엘의 왕,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숨쉬는 것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라.  
하느님 종으시니 그분을 찬양하라.

## 나를 생각하게 하는 글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도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잘난 체도 합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닫기도 합니다.  
 나는 정직하자고 다짐하면서 꾀를 내기도 합니다.  
 나는 떠난다고 하면서 돌아와 있고  
 다시 떠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아야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시원해 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다가  
 우스운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외로울수록 바쁜 척 합니다.  
 나는 같이 가자고 하면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으라 하면 같이 가고 싶어집니다.  
 나는 봄에는 봄이 좋다 하고  
 가을에는 가을이 좋다 합니다.  
 나는 남에게는 쉬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계속 일만 합니다.  
 나는 희망을 품으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나는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화를 좋아하지만 안정도 좋아합니다.  
 나는 절약하자고 하지만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하고 나서 지키고 싶지 않아  
 핑계를 찾기도 합니다.  
 나는 남의 성공에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질투도 합니다.  
 나는 실패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실패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나는 너그러운 척 하지만 까다롭습니다.  
 나는 감사의 인사를 하지만  
 불평도 털어놓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고 괴로워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품고  
 오늘은 이렇게 청개구리로 살고 있습니다.

-정용철, '마음이 쉬는 의자' 중에서-

## 나는 소망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볼 때  
 내가 더욱 작아질 수 있기를.  
 그러나 나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삶의 기쁨이 작아지는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다른 이가 내게 주는 사랑이 내가 그에게 주는  
 사랑의 척도가 되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언제나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내 용서를 구할 만한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한계를 의식하며 살기를.  
 그러나 내 스스로 그런 한계를 만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기를.

-헨리 나웬 신부-

## ✠ 본명 축일을 축하합니다

김성화 에피파니아 (7월12일)  
 강영순 스텔라 (7월19일)  
 남석현 야고버 (7월25일)

##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 우리 형제회 서약식이 7월 15일 오후 3시부터 트라이앵글 St. Francis of Assisi 성당에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전 영적보조이신 NY에 계시는 김병두신부께서 주례사제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오늘 서약식후 남아고버 형제택에서 각테일 파티가 있습니다. 전화 703-969-0787
- + 6월 24일 서약피정을 해 주시고 28일 한국으로 떠나신 김안티모 신부께서 한국에 잘 도착 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중 기억하도록 합시다.
- + 서약 피정이 6월24일 MD 클라라 형제회원들과 함께 (총20명 참석) 웨스트 버지니아 PriestField 피정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 + 7월3-8일 피츠버그의 국가 형제회 피정에 한테레사, 한바오로, 강마리아께서 다녀오셨습니다.
- +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성소가 있어 보나벤투라회에 지원하실 분들을 오는 8월19일에 시작하는 양성반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 + 7월 구역모임이 1구역은 8일 괄로사 자매택, 2구역은 1일 강말가리다 자매택에서 각각 있었습니다.
- + 지구형제회 피정이 10월12-14일(금-일) 웨스트 버지니아 PriestField 피정 센터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8월1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50  
비용: 2명 취침(\$142)/여러명 취침(\$121)

### 8월 간식담당

강마리아, 박세실리아, 남엘리사벳

### 기도 중 기억합니다 ...

- + 7월에 서약/입회하시는 분들을 위해 ...
- + 보나벤투라 형제회와 회원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특히 몸이 불편하신 정글라라 자매를 위해 ...
- + 한국에 방문중인 조마리아 자매를 위해 ...
- + 세계의 평화를 위해 ...

### 7월 서약식 시간표

3:00 PM - 서약식/미사

4:30 PM - 리셉션

### ✧ 미사성가: 지침서 ✧

입당: 하느님 크시도다      성체: 주의 잔치  
봉헌: 평화를 주옵소서      마침: 태양의 찬가

미사해설: 지요한

제1독서: 남아고보      제2독서: 최마리아

제물봉헌: 박요한, 박루시아

기도: 김젼마, 강마리아, 박세실리아, 남엘리사벳

음악 봉사: 바이올린(남윤석 프란치스코)

피아노(한승원 요셉)

기타(강요한)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509-1388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태승 안티모 OFM kantimo@hotmail.com